

[수필]

■ 이정희

# 석양은 왜 아름다운가?

오늘 석양을 바라보며 문득 사색에 잠긴다. 석양은 왜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가? 해가 서산에 다달은 순간, 하늘은 온갖 색깔로 물들어 마치 화가가 붓을 휘둘러 그린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다. 주황, 분홍, 금빛이 어우러져 저녁 하늘을 수놓은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황홀하다.



석양이 강물 위로 기울면 물빛은 황금색으로 물들고 발아래로 길게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흐릿해진다. 어느새 내 삶에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 황혼, 이 단어를 입에 올릴 때면 저도 몰래 말 못할 답답함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익숙한 위로가 스며들어오기도 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부르하 통하를 거닐면서 석양을 바라보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어머니는 “석양은 하루의 마무리를 예쁘게 장식해주는 자연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삶의 령정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지난 가을 우리 부부는 산책을 나가 모야산 아래 세전이별을 거닐었다. 발아래로 펼쳐진 논밭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해는 서서히 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오히려 더욱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주황에서 진홍, 자주빛까지 쌓인 색이 마치 인생의 황혼 령정과 닮아 보였다. 젊은 날의 강렬함, 중년의 풍요로움, 그리고 노년의 잔잔함이 한데 어우러진 듯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에 빠져들었다. 묵묵히 걸어가다가 슬그머니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우리도 석양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면 좋겠다고 살짝 미소를 보였다.

어느 가을날, 락엽이 쌓인 공원 벤치에 앉아있노라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인생의 박자가 들렸다. 급하게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 멈춰서서 하늘을 보는 사람, 그 각자의 속도가 그대로의 삶의 굴곡인 듯 보였다. 나는 이제 그 속도에

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락엽 하나에 시선을 주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 카락울 손으로 쓸어넘길 여유를 갖고 싶다. 옛 사진을 넘기며 웃고 오랜 친구와 통화하며 수도도 떨고 이런저런 작은 추억 속에서도 만족감을 찾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면서 석양처럼 은은하지만 사라지기 전 더욱 선명해지는 강렬한 빛 그 뒤에 드리운 노을을 보려다.

퇴직후 나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젊은 시절부터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퇴직후 나에게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나는 글쓰기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빈 종이를 바라보며 무슨 글을 써야 할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점점 글쓰기의 재미를 알게 되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나는 각종 잡지사나 신문에 글을 투고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작품이 실렸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내 글이 세상에 나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다. 그후로 나는 꾸준히 글을 써 여러 매

체에 발표했다. 매번 글이 실릴 때마다 나는 새로운 성취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석양빛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느끼는 편안함과도 같았다. 석양 빛은 하루의 끝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그것은 마치 나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패기는 이제 석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답고 따뜻하다.

글쓰기를 통해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의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꿈꾸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쫓만 나면 글을 쓴다. 이제 나는 예수를 넘긴 나이이다. 젊은 시절의 패기와 열정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여유와 지혜가 채워주었다. 그리고 석양빛 속에서 나의 글쓰기 령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석양빛처럼 밝고 싶은 마음이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사라질 때 하늘은 잠시 환관을 쓴 듯 찬란해진다. 예전에는 이 순간을 놓칠까 봐 단념했지만 이제는 그 빛이 스민 공기를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순간의

빛을 영원히 가둔 그림처럼 나도 매일의 노을을 마음에 담아보려다. 세월이 고여 만든 주름 속 미소를, 다 닳은 신발 밑창에 더 많은 길을 담아내면서 이제는 그 굴곡을 어루만지며 내 인생을 읽어보려다. 피부 아래로 드러난 이마의 세로줄, 눈가의 잔주름, 시간의 저축이야말로 진정한 자서전이다. 스무살의 나, 마흔살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서로 다른 속도로 어우러져 내 발자국을 만들었다. 젊은 날의 령정, 중년의 고뇌, 지금의 평정 모두 다른 색깔이지만 어우러지면 황금빛이 된다. 오래된 와인처럼 살도 깊어질수록 풍미가 진해진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진정한 석양의 빛이 아름다운 이유가 아닐까 싶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커피 한잔을 마시며 석양을 맞이한다. 해빛이 창문틈으로 스며들어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마냥 스쳐지나간다. 젊은 날들의 고생과 기쁨,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추억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시간이 남기고 간 모든 사연들이 하나하나 빛나는 리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석양이 빛나는 비결은 아마도 그 순간의 순수함에 있을 것이다. 지는 해는 아쉬움보다는 오늘을 잘 마무리했다는 만족감으로 빛나야 한다. 그 빛은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채롭게 반사되지만 석양이 아름다운 리유는 단지 화려해서가 아니라 사라지기 직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빛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인생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는 해가 주는 그 찬란한 작별 인사가 두려울 것도 없으리라!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았다. 오늘도 또 하나의 석양이 저물어가는 내 레일의 해돋이를 기다리며 오늘의 석양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빛을 잃은 순간조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석양처럼 내 인생 한구석에 남은 하얀 여백에 나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를 소망해본다.

[시조]

■ 리명자

## 옛집 (외 3수)

초가도 그대로고  
뜨락도 그대로인데

꽃샘추위

머리 푼 버드나무는  
한세기를 넘겼구나

옛그제 웃던 하늘  
갑자기 변덕 부려

추위 속 떨던 가지  
눈물로 얼어붙네

마루엔  
고무신 한쌍  
떡방아를 지키네

가없다  
어린 꽃망울  
필동 말동 곁눈질

고향

세월역

색바랜 사진 한장  
기억이 아련한데

세월에 끌려왔나  
손잡고 같이 왔나

동구 밖 키 큰 나무 그늘이  
할때 쉼터

멈춰서 돌아보니  
역마다 낯설은데

한여름  
부채 바람이  
옛날 체취 실었소

노을은  
저 산을 안고  
오늘따라 불타네

[수필]

■ 배영춘

## 그물망 사이로 흐르는 인연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고기를 잡기도 하고 때론 파도에 휩쓸려 허망하게 돌아오기도 한다. 인연도 그러했다. 단단히 묶어둔 줄 알았던 매듭이 어느새 손끝 사이로 스르르 흘러질 때 나는 그물망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고기를 떠올린다. 잡힐 듯 놓칠 듯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정은 어쩌면 인생은 그물을 던지고 놓치는 일의 반복 속에서 빛어지는 것 같다.

어릴 적 아버지는 “은혜는 돌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네 발로 찾아가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지금도 내게 울림으로 남지만 정작 나는 밑물과 썰물 사이를 맴도는 빛진 마음을 품고 산다. 중학교 2학년 때의 가을, 마음에 중학교가 없어지면서 모두 시내 중학교로 전학할 때였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학을 포기하려던 나를 담임선생님이 붙잡았다.

“나의 눈빛에서 나는 희망을 보았다.”며 길림시 ‘3호학생’ 선별을 추천해주셨다. 서란현 전체 학교에서 단 6명만 뽑는 그 상을 선생님께서 나에게 주시며 시내 중학교로 가라고 여러모로 도와주셨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나의 세월은 모래알처럼 손 틈새로 사라졌다. 선생님께서 편지 한장, 작은 선물 하나 보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받은 만큼은 돌려주지 못해도 잊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은혜란 깊은 것도 중요지만 험락되지 않는 여건 속에 마음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봄비가 어깨를 적시던 동대문시장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내가 백발이 성성한 로인으로 변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변변치 않은 걸음으로 과일가게에서 일을 하는 걸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사회에 첫발을 떼고 사업을 하던 시절, 그는 경쟁자로서 나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었다. “실례합니다만...” 조심스레 입을 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렸다. 그 눈동자엔 내 존재가 없었고 내가 누구인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오랜 시간 품었던 원한이 바다물에 녹아내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 어둠을 손에 쥐고 있던 손바닥만 검어지는 법이다. 원한은 숲을 품고 타는 것과 같아 오로지 나만 재더미로 만들 뿐이었다. 그 날 나는 비로소 손을 폈다. 쥐었던 것을 내려놓으니 바다바람에 간직했던 소금기마저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사람을 만나면 흔히 약속처럼 “다음에 밥 한끼 먹자.”는 말은 가장 가벼운 작별 인사가 됐다. 초년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이제 알 것 같다. 모두가 자신의 파도와 썰물에 치여 사는 삶.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의 무게가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가 약속을 잊어도 “그럴 수 있지.” 웃으며 넘기게 된 것도 그런 깨달음 때문이다. 진정한 우정은 오래 묵혀도 신맛 나지 않는 술처럼 때로 잊혀도 다시 돌아온다. 연락이 뜸해진 친한 친구가 문득 “왜 소식을 없나?”며 찾아올 때면 그사이 흘러간 시간마저 관계의 깊이로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작년 겨울, 대림 지하철역 플랫폼 홀에서 우연히 만난 한 친구가 나를 알아보더니 “너처럼 연락 없는 사람 처음이다.”며 열띤 표현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친구와 연락하는 주고받았지만 두번 만남 없이 두달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우리 서로의 계절을 지나쳤나 봐.”라는 마지막 문자가 계절의 끝에 외롭게 빛났다. 처음엔 아쉬웠지만 이제야 리해한다. 맞지 않는 이들을 보내주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임을 알았다.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흘러간 물고기처럼 반짝이는 비닐만 남기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단간방 밥상 우의 노트북을 두드리다가도 10년 넘는 령정과 우르릉 거림에 문득 정신이 든다. 밤이면 시끄러워 잠 못 잔다며 안해가 세गत을 사자고 할 때마다 “아직 잘 돌아가잖아?” 버티는 내 모습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해본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는 예전과 달리 톱톡 솟품처럼 짙어진 연설같았다. 옛정은 추억의 향기로 남기고 지금의 내게 필요한 건 침문을 활짝 열어 쏘아지는 신선한 공기같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류통기만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일 터, 낡은 그물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어획을 담을 수 없듯이 말이다.

오랜만에 홀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내 커피와 남의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해본다, 어차피 내 잔의 쓴맛 커피는 내가 마셔야 한다는 것을. 남의 설탕을 타도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알아야 한다. 그물에 걸리지 않고 흘러간 인연들도 그물 자체가 아닌 바다를 더 크게 보게 하는 밑밥이었다는 것이다. 바다가 밤새 그물을 털고 새날을 맞이한다. 허물어져도 좋다. 파도는 이미 새로운 그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인생도 그렇기 아닐까? 놓친 것들의 그림자도 오늘을 밝게 하며 레일을 기다리는 손길을 뻗어보리라. 어차피 새로운 그물은 파도 위에 또 펼쳐지니까.

[수필]

■ 리성호

# 굿바이! 일확천금의 유혹

그날도 나는 복권점으로 향했다. 허망한 꿈인 줄 알면서도 유혹을 떨칠 수 없다. 일확천금의 욕망 때문에 마음 한구석 충동의 포로가 된다. 가끔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요행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의 끈에 유혹되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다.

복권점에 들어서니 복권 구매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쑥덕쑥덕한다. 슬그머니 전날에 구매한 복권을 꺼내 번호를 대조해본다. 영남없이 ‘오리알’ 신세이다. 실망이 엄습한다. 입가로 저도 몰래 탄식이 흘러나온다. 오늘은 그동안들? 영겨주춤 호주머니를 만져보고 핸드폰 앱을 체크하니 고민이 더 깊어진다. 예라, 인젠 복권에 더 빠지지 말자... 이때 한 손님이 호기있는 장담을 한다. “오늘은 반드시 7, 2, 3... 수자가 나올 거요.” 주변 손님들도 서로 맞장구를 친다. 요행 심리가 또 고개를 쳐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비장한 각오로 번호를 선택한다. 실낱같은 희망에 또다시 운명을 걸어본다.

실은 복권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서부터 안해의 바가지 쿡기가 시작되었다. 그레도 항상 환상과 욕망에 눈이 멀어 안해의 말을 마이동풍으로 생각했다. 가끔 자신의 소행을 부정하고 반성도 하지만 부질없는 욕망에 항상 결심이 무너진다.

매일이다 싶이 “도대체 복권에 얼마나 더 쳐줘야 정신 차리겠어?” 라고 절망에 가까운 안해의 원망을 뒤로 한 채 집문을 나서군 했다. 나도 안해에게 가끔 미안감이 든다. 못

난 남편을 만나 괜히 고생만 시키는 자신이 미안하고 미울 때가 종종 있다. 얇은 로임 밧푼을 쪼개쓰며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복권의 일확천금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했다.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지만 그 집착을 도무지 떨칠 수 없다. 그만큼 마음속에는 나름의 욕망과 허황한 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어 안해 앞에서 당당하고 싶고 자식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부모한테는 물질적으로 팍팍 효도하는 자식이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 잠자리에서 궁시거리며 던졌던 금전적인 속박에서 해탈될까 고민한다. 그날이 꼭 올거라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그러나 그런 날은 점점 실망으로 현실화되면서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매번 적은 돈이지만 그동안 복권에 처넣은 돈을 꼼꼼히 계산해보면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 돈이면 안해에게 제대로 된 옷 한벌 사줄 수 있고 생일이면 금반지 하나 사줄 여유도 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약이라도 사드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일확천금을 꿈꾸다 인생을 망친 사례가 적으나... 피터는 노력만이 진실한 열매를 맺는 법이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임버릇처럼 하시는 충고의 말씀이다. 하지만 항상 아버지의 당부를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지 않고 귀등으로 흘려버리며 일확천금이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막연히 고집한다. 변연히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기만 한다.

내 고집과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은 부양하는 처지에 복권의 일확천금에 병원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느꼈고 지어 절망에 가까운 충격에 빠졌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세상 피부로 실감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부터 나는 고민했다. ‘로또’와 같은 허황한 일확천금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내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어디에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를 인생의 풍랑 속을 헤치고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삶의 미로에 빠져있는 자신의 모습에 방황했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원망했고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 속에서 “아...” 하고 괴로움을 토해냈다. 그런 순간,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절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내가 추구한 것들이 모두 허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날의 허무한 꿈과 욕망은 내 삶에 아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결심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욕망과 허황한 꿈을 버려야겠다고...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찾아야겠다.

그후로 나는 복권과는 완전히 담을 쌓았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도 찾아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신체 상황만 허락되면 과감히 뛰어들었다. 가끔 허황한 꿈의 유혹에 복권판 매소를 지날 때면 저도 몰래 발걸음을 멈출 때도 있지만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의 약해지는 모습을 애써 추스리게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웃음기 사라진 안해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올랐고 귀여운 딸의 열광도 활기차졌으며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려는 자신의 약해지는 모습을 애써 추스리게 된다. “당신 덕분에 나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다른 이들의 삶에 의미를 가미하는 것임을... 다시는 이루지 못할 욕망과 허영에 발목을 잡히지 말아야지 하고 명심하게 된다. 사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평범함 속의 일상들인 것 같다.

작은 행복, 성공, 즐거움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가족에 필요하고 친구에게 도움이 되며 사회에 더 밀돌이 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의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자신의 빛과 열을 다하는 것이 후회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접경임을 각오하게 되었다.

나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매 시간을 소중하게 나누어가며 알찬 일상에 매진해 나가는 지금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